

2025학년도
유아교육과 마중물 사업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학교현장실습 수기>

최우수 - 김○연

2025년 유아교육과 마중물사업 학교현장실습 수기

소속지역대학	부산방송통신대학교	번호	입력금지
실습기간	1차: 2025-09-15~2025-09-26 2차: 2025-10-27~2025-11-07		
학번			
이름			
연락처			
내용			
#.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다시 세운 '교사로서의 태도'			
<p>유치원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며 나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품었다. "어떤 기관에 가느냐 보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교사가 서게 될 현장은 언제나 달라지고, 그 환경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차이를 불평의 이유로 삼기보다,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배움을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로 서고 싶었다.</p>			
# 1. 현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교사의 시작임을 알다.			
<p>출근 시간이 더 이르거나 예정보다 늦게 퇴근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조용한 교실에서 교사들이 행사 자료를 만들고, 환경을 손보고, 아이 한 명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자연스럽게 현장을 존중하는 시선을 배우게 되었다.</p> <p>"교사가 서 있는 현장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서느냐이다." 이 문장은 실습 내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 기준이었다.</p>			
# 2. 편견을 마주해도 나의 길을 신뢰하는 법			
<p>나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배우고 있다. 주변에서는 "방통대라서 편견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기도 했다.</p> <p>그러나 나는 실습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굳혔다.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배워왔는지, 현장에서 보여주면 된다."</p>			

방통대는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

그 주도성과 학교에서 배운 수업 실연한 것이 실습 중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실습을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배움의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겼다.

3. 하루를 성찰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진짜 교육자'의 모습

실습 기간 동안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매일 이루어진 아침·오후 회의였다.

아침에는 아이들의 하루를 세심히 계획하고,

일과가 끝난 뒤에는 아이들의 작은 말과 행동까지 함께 되짚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교사는 매일 배우고, 매일 다시 서는 사람이다."

실습생인 나에게도 회의는 지적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4.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배운 '질서 있는 자유'

내가 실습한 곳은 몬테소리 유치원이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눈에 보이는 '규칙'이나 '통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의 힘이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선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와 흐름이 있었다.

교구를 사용한 뒤 제자리에 두고, 필요할 때 조용히 가져오며,

교사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책에서 보던 '**준비된 환경(Prepared Environment)**' 그 자체였다.

지도교사의 교구 소개 방식 또한 깊이 인상적이었다.

- 발달연령에 맞춘 난이도와 안내
- 교구의 순서 명확히 알려주기
- 교구를 사용할 때 어려운, 활용할 점 등 함께 이야기 나누기
- 마무리 단계까지의 명확한 안내와 시범

모든 과정이 불필요한 말을 덜어낸 정확하고 명확한 모델링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동안 지도교사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 → 필요한 순간 최소 개입 → 다시 관찰의 흐름을 지키며

아이의 탐구 과정을 존중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아이의 자유는 방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와 환경의 구조가 받쳐줄 때 비로소 유지된다."

몬테소리 유치원에서의 실습은

교사의 태도와 환경의 힘을 깊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5. "실력'보다 '태도'를 먼저 읽어준 따뜻한 인정

실습 중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길어져 아이들의 흐름이 끊긴 날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은 내 수업의 완성도를 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진심을 봐주신 것이었다.

실습 마지막 날, 아이들이 건넨 직접 쓴 손편지까지 더해지며
내가 아이들 곁에서 보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어떤 현장이든 흔들리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

요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배움'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실습을 마치고 나니,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배움을 말하기 전에,
교사인 내가 어떤 유아관·교육관을 가진 사람인지 먼저 세워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태도와 철학이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떤 현장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실습은 그 '뿌리'를 확인하도록 도와준 시간이었다.

7. 실습은 끝났지만, 태도는 계속 자라는 중

아이들의 편지와 지도교사의 한마디를 가방에 넣고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현장, 어떤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아이들이 즐거움 속에서 배움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따뜻한 태도로 곁을 지키는 교사가 되자.

8.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실전 꿀팁

실습 중 진짜 도움이 되었던 것들만 정리해 전하고 싶다.

- 아이 이름은 최대한 빨리 외우기
- "도와드릴까요"보다 먼저 움직이기
- 출퇴근 시간도 관찰의 시간으로 활용하기
-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 피드백을 지적이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보기
- 주변의 말보다 스스로의 길을 신뢰하기
- 손재주 없어도 최대한 열심히 교구 만들고 계획하기
- 단설·병설 희망 시 학기 시작 직후 바로 연락하기 (3월)

→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음. 사립에도 배울 점은 매우 많다.(유경험자)

- 동료 실습생이 없던 환경이 오히려 더 집중과 성장을 가능하게 함

→ 비교 없이 아이와 교사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완벽함은 기억되지 않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실습을 앞두고 계신 후배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로 서는 과정은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와 두려움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선생님의 태도가 선생님을 지켜줄 것이며,
아이들은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진심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실습 기관이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아이들 곁에 따뜻하게 서 있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선생님을 훌륭한 교육자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아이들과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바라봐주세요.
저도 먼저 그 길을 걸어보니, 결국 중요한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바른 태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심.

실습을 준비하시는 모든 후배 선생님들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

